

오일장·시제·어촌 이방인들에 비친 남도의 맥락

프랑스에서 이미 버섯을 공부했다. 버섯의 균사체를 뽑아 먹이나 황토에 섞어 천연 자연이 만나는 실험을 수행하는 동시에 버섯 혹은 균사체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중국에는 이들 작품 재료들을 활용해 한 권의 책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여정을 가지고 있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참여작가인 샤를로트 자니스의 설치작품 ‘이슬 ROT POT’의 스토리다. 이처럼 상상도 못할 예술적 시도가 투영된 작품들이 즐비하다. 무더진 감성은 물론이고 모처럼 상상력을 일깨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그것이다. 단순한 국제교류전이 아니라, 2년여 전부터 전남미술관과 예술공동체 간 기획해 온 장기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로, 프랑스 작가들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전남에 도착해 한 달여 간 지역에 머물며 창작 활동까지 펼쳤다.

이들이 전남의 오일장과 전통시장, 해남 녹우당의 시제, 여수의 바다와 어촌 풍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 등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결과물을 작품에 녹여냈다. 이들은 남도의 시장에서 식재료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그리고 시제 같은 곳에서는 남도의 전통을 봤을 것이고, 여수 어촌 같은 곳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서민들의 삶의 속살을 봤을 터다. 이들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에서 남도의 맥락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전남미술관 (관장 이지호)에 따르면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의 예술가 공동체 르윈더(Le Wonder)와 공동 기획한 국제교류 특별전을 지난 4일 개막, 11월 8일까지 ‘두 도시, 하나의 불꽃’ (2 FEUX 2 FLAMMES)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양 기관의 상호 레지던시와 공동 전시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국제교류 모델 구축 가능성을 입증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일회성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예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애초 목적이 근접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프랑스 문화원의 해외예술 확산 지원사업 (PIDA, Programme International de Diffusion Artistique)에 선정돼 국제적 공공성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전시에는 국내 작가 4명, 프랑스 작가 5명 등 총 9명이 참가, 총 16점이 출품됐다. 전남·광주에서는 고정찬, 박인혁, 정해성, 조한나씨, 프랑스에서는 앙토냉 하코, 샬로트 자니스, 벨슨 페르니스코, 피에르 게나르, 발랑틴 가르디에네 등이 참여했다.

전남미술관, 한·불수교 140주년 특별 전시 ‘두 도시, 하나의 불꽃’ 주제 11월 8일까지 16점 출품 “세계 진출 ‘플랫폼’ 구축 노력” 국내 작가 4명, 9월 파리 레지던서서 활동



앙토냉 하코 작 ‘익스플로러 전라남도’

이번 프로젝트는 상호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전남미술관 전시 공간에서 설치와 회화, 영상, 조각 작업을 현장 제작하며 지역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과정이 중요한 키포인트로 읽힌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동일한 장소를 경험하는 한편, 각기 다른 감각과 조형 언어로 풀은 결과물들이어서 국제 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국내 작가들은 전남의 풍경과 사회, 개인의 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지역의 삶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동시대 미술의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세계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먼저 고정찬 작가는 파리 지하 카타콤브를 탐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까파: 본 데상트’와 ‘유령도 빛이 필요하지’를, 박인혁 작가는 몸의 움직임

과 감정의 흐름을 색과 붓질로 옮긴 대형 회화 ‘풍경·공명’과 ‘풍경·합류’를, 정혜성 작가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Monad) 개념에서 출발한 소형 회화 연작 ‘나의 모나드’와 관람객이 잠시 머물며 사유할 수 있는 설치 ‘사이의 공간’을, 조한나 작가는 전남 여수의 선거 풍경을 기록한 영상 ‘파랑대잔치’와 거리에서 수집한 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설치 ‘색상전본표’를 선보이고 있다.

이러 프랑스 작가들은 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의 경험을 투영했다. 앙토냉 하코는 시장과 거리에서 관찰한 장면을 회화로 기록한 ‘모노티프-피콜리소’와 회전하는 대형 설치 ‘익스플로러 전라남도’를, 샬로트 자니스는 직접 제작한 한지와 지역 농가에서 구한 표고버섯 균사체를 결합한 유기적 설치 ‘이슬 ROT POT’을, 벨슨 페르니스코는 지역에서 기증받은 가구와 신문지, 박스를 활용한 미로형 설치 ‘벽벽 씻어내, 발레는 안녕!’을 각각 출품했다. 이외에 피에르 게나르의 지역 전통시장에서 수집한 식재료를 냉동한 설치 ‘불고기 서비스’와 산업 자재 및 3D 프린팅을 결합한 대형 조각 ‘즈블 아토믹’을, 발랑틴 가르디에네는 인형극 아카이브에서 착안한 대형 드로잉 ‘푸른 밤’과 목재 부조 형식의 벽면 설치 ‘다시 만나요’를 각각 출품, 선보인다.

이번 교류는 전시 외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작가 4명이 프랑스 파리 르윈더 레지던시에 참여해 9월 한 달 동안 머무르며 활동을 펼친다.

이지호 관장은 “‘두 도시, 하나의 불꽃’은 서로 다른 도시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며 지역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예술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전시로 구현한 프로젝트”라면서 “앞으로도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남미술관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이자 지역 예술가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은 4일 오후 3시 전남미술관에서 참여 작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멈춤과 사색...멍 때리고 싶은 분들 모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전당장 김상욱)은 6일부터 20일까지 ‘2026 ACC 하늘마당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 100개 팀을 사전 모집한다.

오는 9월 5일 하늘마당에서 열린 ‘2026 ACC 하늘마당 멍때리기 대회’는 ACC의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ACC 미래교실 (ACC Future Class)’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ACC 미래교실’은 예술과 기술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경험하고, 질문하며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예술 경험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웰니스 (Wellness)를 주제로 ‘쉼 (Rest), 숨 (Breath), 삶 (Life)’에 주목해 디지털 환경과 정보 과잉 속 인간의 감각과 신체 경험을 예술로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시각예술가웁쓰양 (Woopsyang)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90분 동안 잠시 멈춰 자신의 몸과 호흡에 집중하며, 함께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다. 작가는 지난 2014년부터 ‘멍때리기 대회’를 이어오며 경쟁과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는 행위를 하나의 예술적 실천으로 보고, 이를 통해 동시대의 멈춤과 사색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문화전당 하늘마당서 ‘멍때리기 퍼포먼스’ 진행

미래교실 첫 프로젝트...시각예술가 웁쓰양 참여



웁쓰양

정지의 장면과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경험까지 작품의 일부로 확장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웁쓰양의 개회 퍼포먼스를 감상한 뒤 간단한 기체조로 몸을 풀고, 90분 동안 특별한 행동 없이 멍한 상태를 유지하며 대회에 참여한다. 참가자는 대회 중 말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참가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은 제한된다. 또한 졸릴 때 마사지 서비스, 목이 마를 때 물 서비스, 더울 때 부채질 서비스,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색깔 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회 규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참가자를 방해하는 경우 퇴장 카드가 주어진다.

우승자는 관객이 투표하는 예술 점수와 심사박동수를 체크하는 기술 점수를

합산해 선정한다. 자신의 직업이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1위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이, 2~3위에게는 상장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된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하늘마당 멍때리기 대회’는 자신의 감각과 호흡을 돌아보고, 예술가와 함께 심이자 새로운 놀이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예술 퍼포먼스”라면서 “앞으로도 ‘ACC 미래교실’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어 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 (www.acc.go.kr)이나 멍때리기 대회 공식 누리집 (www.spaceoutcompetition.com)에서 하면 된다. 개인 또는 최대 3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 초과 시, 프로그램 취지에 대한 이해와 참가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이와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여수 화양 바다 배경...삶 내력 농밀한 서사로 풀다

김지란 시인 세 번째 시집 ‘화양 바다’ 선봬 “살아 있는 체형서 체현된 언어 실제로 완성”

김지란 시인이 세 번째 시집 ‘화양 바다’ (산사나무 刊)를 펴냈다.

2020년 첫 시집 ‘가막만 여자’와 2023년 ‘아름지 않는 상처와 한참을 높았다’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은 여수의 화양 바다를 배경으로, 시인의 삶과 가족의 내력을 농밀한 서사로 풀었다.

이번 시집의 표제인 ‘화양 바다’는 시인에게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닌, 거친 풍랑을 견디며 삶을 일구는 부모님의 터전이자 시인의 유년기 기억이 고스란히 육화(肉化)된 원체형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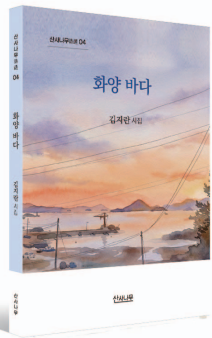
시집에 수록된 ‘수평선’과 ‘등대’, ‘사자섬’ 등의 작품에서는 늦은 밤 화양 바다의 물결을 열어가던 아버지의 거친 손길과 오매불망 아버지를 기다리며 궁핍을 견뎌내던 어머니의 인내가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서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 ‘팔손의

바다’와 ‘덧발의 비발’ 등을 통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고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를 향한 애타는 모성성의 서사를

확장에 보여주는 동시에 원체형 공간인 화양 바다의 파랑을 눈부신 윤슬처럼 피워 올린 사유가 돋보인다.

특히 ‘타이어’ 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서 내려온 헌신적 사랑이 현재 남편의 고단한 일상과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짚어냈다. 25t 트럭의 타이어가 겹겹이 돌아 아들의 섯의 킬을 밀어 올렸듯, 시인의 삶을 지탱해 온 근원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이번 시집이 실제로서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란 시인은 “말이 없는 바다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웠다. 지



나운 고단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삶의 진경을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철영 문학평론가는 해설을 통해 “김지란 시인의 시 세계는 살아 있는 체형에서 체현된 언어의 실제로 완성된 다”면서, “기교에만 의존해 영혼 없는 유사 조형물처럼 찍어내는 최근의 시 경향과 달리, 삶의 진솔한 마음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서정으로 풀어낸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김지란 시인은 전남 여수 출생으로 2016년 ‘시와문화’로 등단, 시집 ‘가막만 여자’, ‘아름지 않는 상처와 한참을 높았다’를 출간했으며, 2020년 아르고 문학나눔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국작가회의와 여수화요문학회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CC 국제교류전 ‘자밀 프라이즈’ V&A 문화상품 공개

전당재단, 영국 현지서 공수 6종 12품목 판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김명규, 이하 ‘전당재단’)은 지난 5월에 개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국제교류 특별전 ‘자밀 프라이즈: 무빙 이미지’ 전시와 연계해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V&A)의 문화상품 6종 12품목을 선보인다.

‘자밀 프라이즈: 무빙 이미지’ 전시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V&A)과 아랍에미리트의 아트 자밀 (Art Jameel)이 협력해 추진해 온 국제 순회전이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ACC에서 선보이고 있다.

전당재단은 관람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고 문화상품점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V&A의 공식 문화상품을 엄선해 영국 현지로부터 직접 들여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V&A의 대표



적인 소상품과 유산을 담은 상징적인 제품을 선보인다.

볼펜과 우산, 천 가방, 컵 받침, 차 깔개, 배지 등 일상생활에서 예술적 감성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실용적인 품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상품은 기존에 영국 현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외 직접 구매로만 접할 수 있었던 만큼, V&A 특유의 감각적인 문화상품을 전당 방문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색다른 즐거움과 소장 가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규 사장은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인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V&A)의 상품을 전당재단이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당의 방문객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